

검단공단·3공단 새도약 모색

서울디지털·시화산업단지 벤치마킹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공단인 검단공단과 3공단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한다.

검단공단과 3공단 기업체 대표와 공단임원 30여명은 3월14일 권대용 북구 부구청장과 함께 IT업체들이 밀집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와 경기 시흥의 시화산업단지를 견학하고, 노후공단의 활로를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과거 섬유·염색업체가 많았으나 아파트형 공장에 벤처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미래형 도심 공단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기계·금속·섬유 등 전통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들 공단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검단공단 관계자는 "기계·금속 등 현재의 업종으로 향후 얼마나 지탱할 수 있겠느냐"며 "미래형 산업구조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형 공장의 실태에 대한 관심도 높다. 시화산업단지 방문을 통해 아파트형 공장의 고층에 기계설비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노후공단의 산업직접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관심 사항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3공단의 경우 소규모의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산업 집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노후공단의 산업 집적화 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기자